



한국: 역동적인 성장을 지속

2013 년 12 월 6 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저는 프놈펜에서 출발한 저의 비행기가 짙은 안개 때문에 일시적으로 서울에서 대구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서울에 다소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도착이 늦어졌더라도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를 달성한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국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를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끌어올렸고, 경제 규모가 세계 13 위인 가장 번영하는 국가로 성장했으며, 1 인당 국민소득이 유럽연합의 평균보다 더 높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실적을 달성한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0 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20 개의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들로 구성된 G-20 의 의장국을 일 년 간 맡았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이 21 세기 최대의 경제적 도전이 될 것이 확실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IMF 를 포함하는 다른 국제 기구에서의 리더십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한국의 역할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 확대와 병행하여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한류"가 K-팝 스타들의 노래, 중독성이 강한 한국 드라마, 제품들의 뛰어난 기술적 능력을 통해서 아시아와 다른 지역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파급력이 강하고, 기억하기 쉬운 싸이의 히트곡에 따라 춤을 추었거나, 최소한 그러한 동작들을 시도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특히 "한강의 기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관계 당국, 여성 지도자, 그리고 서울대학(제가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최고의 명문 대학) 학생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방면의 접촉을 통해서 얻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를 계속 주도할 것이나, 한국 발전의 특징이었던 포용적 성장을 지속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고 풍부한 잠재력을



2013 년 12 월 5 일에 한국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강연을 한 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 아시아 3 개국을 순방 중이다. IMF 사진/Stephen Jaffe

현실화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젊은이와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불평등과 사회에 대한 불만 증가, 특히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는 현실 세계에서 보람있는 직장, 고용 안정성, 생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저는 전세계에서 가장 재능이 있고, 강인하고, 헌신적인 한국 여성 중 몇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한국의 최고위 공직에 선출된 최초의 여성이고,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여성들이 있는 한, 한국의 미래가 낙관적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나, 모든 여성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사용하고 입증할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왼쪽)는 2013년 12월 4일에 한국 서울에 있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오른쪽)을 만났다.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 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이다. IMF 사진/Stephen Jaffe

또한 모든 사람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고, 한국은 이를 달성할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비스 부문이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활력을 더욱 충분히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필요한 경우 기득권과 싸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분야를 추진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약속에 의해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과 IMF 사이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IMF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한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예는 아시아태평양국의 신임 국장으로 한국인을 임명한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이 관대하게도 IMF의 역량 구축 프로그램에 대해 향후 5년간 1,5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기부를 실행하는 것을 보았고,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한국을 본받을 기회를 제공할 글로벌 연대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IMF는 이에 대한 답례로서 IMF의 국제적인 경제 협력과 다각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한국에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IMF는 전세계 회원국들의 관점을 취합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서로 다른 지역들이 조화를 이루고, 상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재를 확대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독특한 다국간 관점을 제공합니다.

끝으로, 저는 활력이 있고 낙관적인 미래를 느끼면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또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역동적인 탐구를 계속하는 한국과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기를 기대하면서 한국을 떠났습니다.